

Music Biz Weekly Brief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1호 2008.12.11 ~ 2008.12.17

## I. Analysis Overview ..... 1

---

## II. 국내 동향 ..... 4

---

1. 산업정책 및 제도 ..... 4
2. 음악업계 동향 ..... 4
3. 소비자동향 ..... 7
4. 언론동향 ..... 12
5. 세미나 및 학회소식 외 ..... 14

## III. 해외 동향 ..... 16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6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 19

# I . Analysis Overview

<b>&lt;국 내 동 향&gt;</b> .....	<b>4</b>
[산업 정책 및 제도] .....	4
- 김평수	
<b>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출범</b> .....	<b>4</b>
12월 12일 국내 음원 유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3개 메이저 음반사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가 출범.	
<b>음제협-DCNA, 웹하드 음악콘텐츠 유료화 합의로 Win-Win 모색</b> .....	<b>4</b>
현재까지 총 21개의 중·대형 웹스토리지 업체와 유료화 합의를 마친 상태.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윈-윈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짐.	
[음악업계 동향] .....	4
- 김 훈	
<b>음악산업계 다양한 수익을 찾아 뮤지컬과 게임시장으로 고고!</b> .....	<b>4</b>
뮤지컬 및 온라인 게임 그리고 스포츠 스타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에 도전하는 음악산업	
<b>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와 월드스타 '비'</b> .....	<b>5</b>
베토벤바이러스가 음반에게 즐거운 바이러스를 보여주고 있다. 침체된 클래식음반에 활력을 주고 있으며, 월드스타 '비'가 아시아 배급을 시작했다.	
<b>기타 단신 등</b> .....	<b>6</b>
- 롯데그룹이 중국 CCTV의 인기 음악프로 '동일수가'의 한국공연 주최.	
- 아이돌 모였다, 흠어졌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진화한다.	
- '빅뱅' 온, 오프라인 모두를 점령하다.	
[소비자 동향] .....	7
- 서상아	
<b>음반동향 '돌아온 오빠들의 선전'</b> .....	<b>7</b>
90년대 인기가수 윤상과 넥스트가 음반을 출시하면서 한동안 아이돌 위주로 돌아가던 음반 시장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다. 또한 약 한 달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음반판매량이 상승하면서 연말시즌의 음반시장도 약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b>&lt;총 맞은 것처럼&gt; 음원 전 차트 석권</b> .....	<b>10</b>
대형스타들의 컴백과 더불어 발라드의 실종이 우려되었던 음원시장에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 전 차트를 석권하면서 다시 발라드의 강세가 시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u>인기가수들의 피쳐링 곡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음원시장을 겨냥한 피쳐링 곡들의 강세는 추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u>	

[언론 동향] ..... 2

- 박진섭

**호조를 보인 2008년 음반시장, 일시적인가?** ..... 2

지난해 말 기준, 10만장 이상 팔린 앨범은 SG워너비, 슈퍼주니어, 에픽하이 뿐이었지만 올해는 동방신기를 비롯해 빅뱅, 서태지, 브라운 아이즈, 비, 김동률 등 6팀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2008년에 계속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형 음악 협회 ‘한국음악콘텐츠 산업협회’ 공식 출범** ..... 12

소니비엠지뮤직, 엠넷미디어, JYP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디지털음원 유통사, 제작사 등 총 13개사가 결합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며 정식 단체로 출범했다.

**아이돌의 강세 그리고 新·舊의 조화** ..... 13

2008년은 아이돌그룹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방신기, 빅뱅, 원더걸스, 카라 등 기존의 아이돌그룹들은 물론 새롭게 가세한 2AM, 2PM, 샤이니 까지 자신들의 힘을 입증했다. 또한 서태지와 김동률, 브라운아이즈 등도 성공적인 한해를 보냈다.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 논란** ..... 4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비의 ‘레이니즘’의 가사에 선정성을 지적하고 19금 판정을 내린데 이어 동방신기의 ‘미로틱’에 대해서도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렸다.

[세미나 및 학회 소식 등] ..... 4

- 장정희

**저작권 위원회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 14

음악, 어문, 영상, 방송 등 다채로운 영역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사업 경과와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관련 사업 보고가 이루어짐.

**지역음악협회, 선거 앞두고 좌충우돌** ..... 15

오는 29일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전음악협회와 내년 1월에 차기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광주음악협회가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 외 동 향> ..... 16

[해외 음악산업 동향] .....	6
- 고민정, 김훈	
<u>뉴욕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에 세금부과 추진</u> .....	16
금융위기에서 초래된 세금 부족분을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상하다	
디지털음악 매출 10억 달러 예측, 그러나 '블루크리스마스'시즌 .....	6
GoTV 네트워크의 True Country가 모바일전용 채널 런칭 .....	17
모바일방송 콘텐츠를 지속 확장해나가는 GoTV 네트워크	
<u>유럽 음악 저작권 기간 70년으로 연장 추진.</u> ....	17
<u>베스트바이-월마트 록음반 독점판매 '희비 교차'</u> .....	8
이제 음악도 일반 생활 전문매장이 대세!	
<u>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전략적 변화 프로그램 착수</u> .....	18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그램의 개혁을 단행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	9
- 고민정, 김평수	
<u>애니메이션 겨울연가 한류 붐 계속 이어가나</u> .....	19
제작비 10억엔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겨울연가'의 제작발표회가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 센터니아홀에서 열려.	
<u>한국가수 오리콘 위클리 차트 석권</u> .....	19
오리콘 10월 넷째주 위클리 차트에 1위(동방신기), 2위(이병헌), 4위(류시원)를 모두 한국 가수가 차지 <동방신기>는 2008년에 4차례나 1위에 등극	
<u>한국가수 일본 진출 붐</u> .....	20
가수 알렉스가 한국요리 프로그램 MC로 일본에 진출하고 그룹 오션 출신 가수 이현 일본현지 미니콘서트 활동	
<u>말레이시아, 카세트와 CD 판매 감소</u> .....	20
말레이시아 음악업계는 지난 3년 동안 CD와 카세트 판매가 2005년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 원인은 불법 다운로드 때문.	

## II. 국내 동향

### 1. 산업 정책 및 제도

#### 1.1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출범

국내 음원 유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3개 메이저 음반사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가 12월 12일 출범했고 방극균 예전미디어 사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음콘협은 최근 음반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 1.2 음제협-DCNA, 웹하드 음악콘텐츠 유료화 합의로 Win-Win 모색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는 11월 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음악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 창출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웹스토리지 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한 기본 합의를 마쳤다.

이번 합의문은 DCNA가 음제협이 관리하는 음원의 합법적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기존 유료음악시장과 웹스토리지의 서비스간의 상생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료화 모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DCNA 회원사는 현재 국내 저작권 기술 보호조치의 최고 수준인 '오디오 핑거프린팅'\* 을 적용해 음악의 무단공유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양측은 '윈-윈(win-win)'이 가능하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배분해 '저작권 침해 장본인'으로 지목 받던 웹스토리지 사업자는 불법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막대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효과적인 수익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음제협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1개의 중·대형 웹스토리지 업체와 유료화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윈-윈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Audio Fingerprinting - 영상 사운드 트랙을 분석한 뒤 불법 여부를 가려 저작권자가 아닌 이용자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는 기술

### 2. 음악업계 동향

#### 2.1 음악산업계 다양한 수익을 찾아 뮤지컬과 게임시장으로 고고

SM의 첫 뮤지컬 '재너두'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락을 마쳤다. 17억 가량의 제작비를 투여하고 소속사 가수인 강인, 희철 등이 출연하여 아이돌의 시장능력을 뮤지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SM의 첫 뮤지컬은 평일 객석점유율이 50%를 넘기지 못하였다. 전문 뮤지컬 배우에 미치지 못한 연기력과 주 수요층인 소녀 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10만원 대의 입장료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뮤지컬의 어려움과는 다르게 온라인 게임의 OST쪽에서는 나름 새로운 수익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엔시소프트에 아이온 OST는 10월 말과 11월 초 각각 인터파크 음반 판매순위 1위와 OST 판매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테트리스 OST에 참여한 신혜성 등은 오픈 2달 만에 이용자 한 명당 4곡 이상 내려 받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가수 임정희씨가 부른 엠게임의 '풍림화산' OST '하늘아 바람아', 예당온라인의 '프리스톤테일2'의 전속 모델 손담비의 OST와 뮤직비디오 역시 각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를 얻었다.

게임 OST는 또 벨소리, 컬러링 등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 부가 수익측면에서도 짹짹하다는 평가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음악이 단순 구색을 넘어 연간 수조원의 별도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겨요정 김연아도 음반에서도 힘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9일 김연아가 출전한 피겨 경기 배경음악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 곡들을 모아 발표한 클래식 앨범 'Fairy On the Ice'가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클래식 주간 판매 부문 1위에 올랐다. 또, 가요, 팝을 모두 통합한 판매 순위에서도 들은 상태다.

최근 음악산업계는 산업 전반의 침체를 다양한 방법론의 통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 2.2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와 월드스타 '비'

- 인기 속에 방영된 '베토벤 바이러스'가 클래식 음반 시장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처음 시도된 클래식 드라마라는 점에서 호평을 이끌어낸 '베토벤 바이러스'의 성공에 힘입어 클래식 음반 시장에는 다양한 클래식 컴필레이션 음반의 발매를 이끌어냈으며, 클래식버전 1, 2집이 1만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더불어 음악드라마는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음악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비의 소속사 제이툰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늘부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국에서 잇따라 비의 5집이 발매된다”면서 “향후 태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순차적으로 음반 발매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의 아시아 판 음반 발매의 유통사로 워너뮤직(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GMM그래미(태국), 포니캐년(일본) 등 각 언어권 최고 메이저 음반사가 대거 뛰어들면서 비의 높은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 2.3 기타 단신

- 현재 해외사업 영역을 확장중인 롯데그룹은 한국과 중국 간 문화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중국 CCTV의 대표적인 인기 음악프로그램인 '동일수가'의 한국공연을 주최하기로 했다. CCTV의 '동일수가'는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공연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및 중국의 대표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기업의 후원은 롯데그룹이 처음이다.

내년 설날을 기해 중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인 '동일수가'는 월드스타 비를 비롯해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더걸스, 백지영, 신혜성, SS501, 2PM 등이 국내 대표가수로 출연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최고의 프로듀서와 한국·중국의 최고 인기 출연진이 호흡을 맞춰 한국공연 무대를 더욱 빛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중문화와 기업의 상호 이미지 차용을 통한 시너지 마케팅이 한류이후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CF에 국한되던 내용을 제작 및 후원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이미지 창출을 기대하는 듯하다.

이번한국 공연은 킨텍스에서 12월 18일 열릴예정이다.

- 아이돌 그룹들의 소그룹 형태의 유닛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주니어는 13명이라는 많은 인원수와 다국적 그룹이라는 것을 내세워 '슈주-M', '슈주-T', '슈주-해피(H)', '슈주-K.R.Y'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쥬얼리도 멤버 김은정과 하주연이 '쥬얼리-S'로 내년 초부터 유닛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SS501, 빅뱅, 소녀시대 등이 그룹과 개인 활동을 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아이돌 그룹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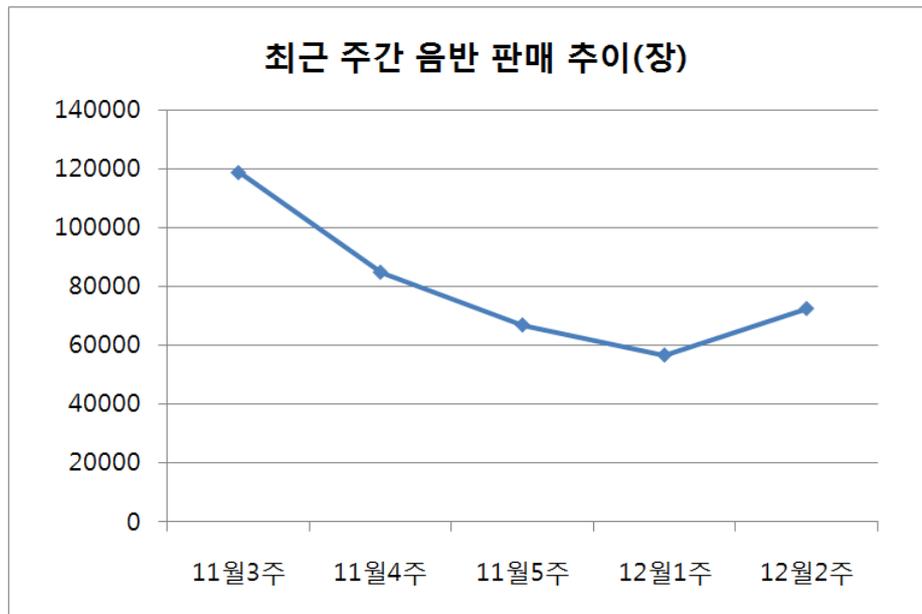
- 5인조 아이돌그룹 빅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18일 현재 오프라인 음반 판매 조사 사이트인 한터차트의 '가수 연간 차트'에 따르면 빅뱅은 최근 1년간(2007년 12월 15일~2008년 12월 13일) 약 46만 1000장의 음반을 판매했다. 이는 국내 모든 가수 중 최고 수치이다.

온라인 음원 판매 부문에서도 강세를 보여,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KTF도시락이 지난 17일 발표한 '2008년 온라인 및 모바일 음원 판매 연간 랭킹 톱 100'에 따르면 빅뱅은 단일 가수(팀) 최다인 8곡을 100위 권 안에 올려놓았다. 이번 조사에서 '하루하루'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기준 2위를 차지했고, 빅뱅 멤버인 태양의 솔로곡 '나만 바라봐'는 8위에 명함을 내밀었다. 또한 빅뱅은 대성의 트로트곡 '날 봐, 귀순'과 지드래곤의 '나만 바라봐(Part 2)' 등도 각각 68위와 71위를 랭크 시켰다.

### 3. 소비자 동향

#### 3.1 음반동향 : 돌아온 오빠들의 선전

12월 2주(12월 11일 ~ 12월 17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음반판매량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빅스타들이 대거 컴백했던 11월과 비교했을 때 약 2/3의 판매고 밖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음반 판매량 저하는 7만 장 판매를 기록하면서 일단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11일 - 17일)

이번 주 음반 차트에서 눈여겨 볼만 한 일은 90년대의 인기가수들의 차트 진입이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체류하며 팬들의 곁을 떠나있었던 윤상이 <Song Book : Play With Him>을 발표하면서 4위로 진입하였다.

또한 오랜만에 앨범을 발표한 넥스트 역시 11위를 랭크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예능과 토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얼굴을 비쳤던 신해철의 마력이 넥스트의 부활까지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이 외에도 백지영, 윤종신과 황프로젝트 앨범, 브라운아이드 소울의 멤버 정엽의 앨범 등의 선전이 돋보이면서 11월 내내 아이돌 천하였던 음반 순위가 일정한 균형감을 찾은 한 주였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판매량	발매일
1	▲11	더블에스501 / U R Man : 스페셜앨범	엠넷	가요	13,108	08/11/24
2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6,439	08/11/5
3	▲1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5,899	08/10/15
4	진입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5,413	08/12/11
5	▲51	2pm / 2pm	로엔	가요	5,406	08/9/5
6	▲1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5,251	08/11/14
7	▼2	동방신기 4집 / Mirotic A버전	에스엠	가요	4,171	08/9/26
8	▼5	김종국 5집 / Here I Am	엠넷	가요	3,874	08/10/22
9	진입	김경록 1집 / People & People	소니	가요	3,658	08/12/16
10	▼2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3,253	08/9/30
11	▲11	넥스트 6집 / 666	포이보스	가요	2,578	08/12/9
12	▲1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 A버전	에스엠	가요	2,038	08/8/29
13	▼7	에프티 아일랜드 / Colorful Sensibility	엠넷	가요	1,660	08/8/25
14	▼3	윤종신 11집 / 동네 한 바퀴	로엔	가요	1,633	08/11/26
15	-	정엽 1집 / Thinkin' Back On Me	엠넷	가요	1,525	08/11/4
16	-	빅뱅 미니앨범3집 / Stand Up	엠넷	가요	1,444	08/8/8
17	▼7	카라 미니앨범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1,363	08/12/4
18	▼4	씨야 3집 / 들중	엠넷	가요	1,336	08/9/30
19	진입	엠씨 더 맥스 / Unlimited	비타민	가요	1,174	08/12/11
20	▲1	황프로젝트 With 박효신 1집 / Welcome To The Fantastic World	비타민	가요	1,147	08/11/26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2월 11일 -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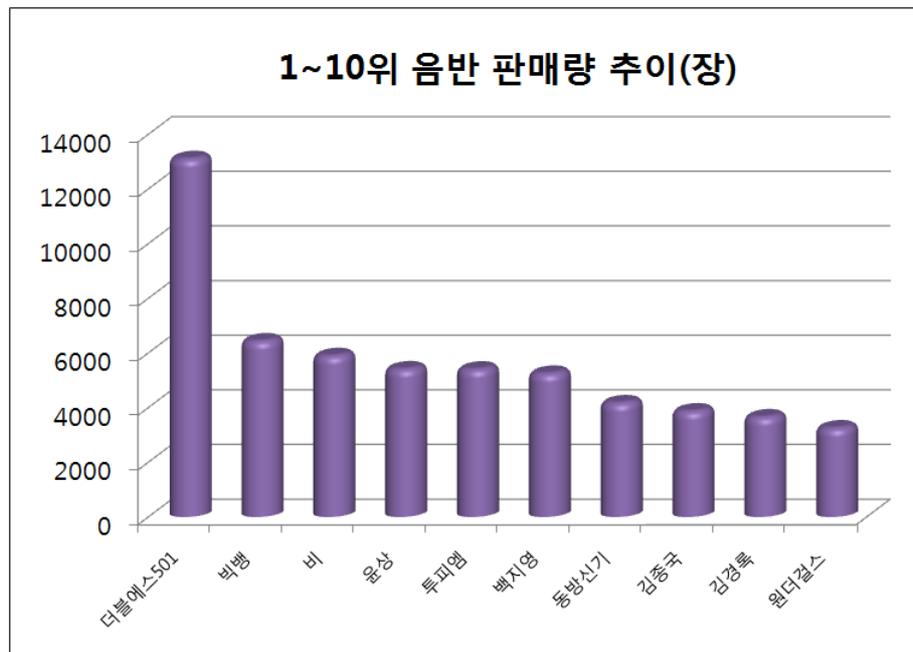
1위에서 10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차트 하위권에서 머무르던 곡들의 급상승세가 눈에 띈다. 발매 이후 중하위권 순위를 지키던 SS501의 앨범이 만3천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1위에 올라섰다. 또한 9월 발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2pm의 앨범 역시 5천 장이 넘는 판매고를 보이며 5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대형 기획사의 지속적 마케팅과 꾸준한 방송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테디셀러 앨범들의 차트 체류가 길어지면서 각각의 음반 판매량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존 앨범들의 강세 속에서 새롭게 진입한 두 앨범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바로 윤상의 <SongBook : Play With Him>과 V.O.S의 멤버 김경록의 솔로앨범 <People &

People>이다. 올해 상반기 김동률을 시작으로 하여 토이가 90년대 음악팬들의 구매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 마무리를 윤상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윤상 앨범의 경우 여러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윤상의 감성을 다양하게 표현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소녀시대와 같은 아이돌 가수와의 작업은 팬 층을 다양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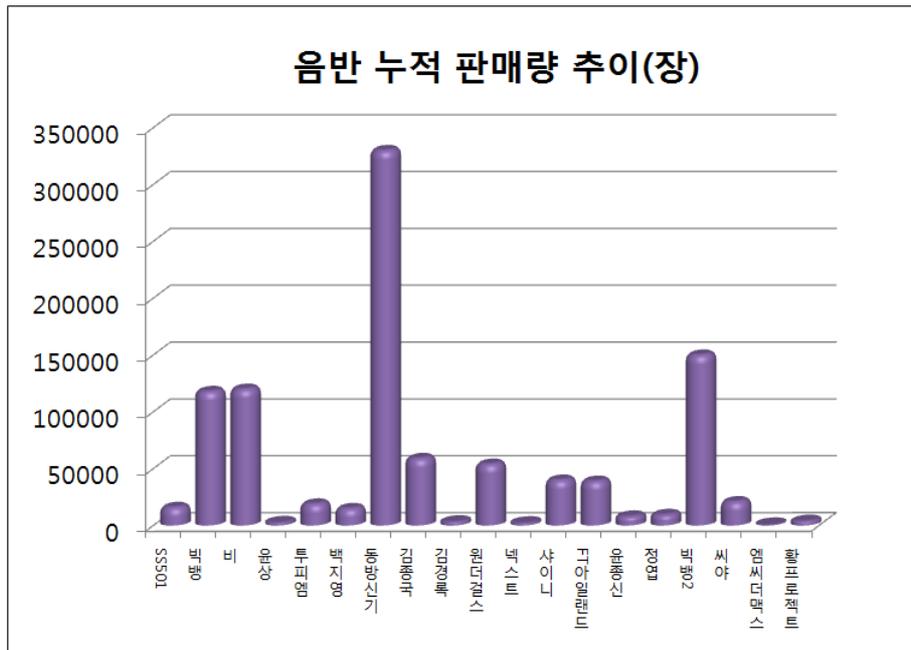
V.O.S의 멤버인 김경록 역시 그룹 활동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역량을 솔로앨범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 V.O.S는 이미 다른 멤버 박지현의 솔로활동이 한 차례 성공을 거둔 바 있어 이번 시도 역시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을 넘어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11일 - 17일)

주간 음반판매량에서는 SS501이 만3천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이번 주 1위를 차지했다면 누적 판매량에서는 여전히 동방신기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미 지난 주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한 동방신기는 현재 33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올 해 최고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뒤쫓고 있는 팀은 빅뱅과 비이다. 특히 빅뱅의 경우 20위권 내에 2장의 앨범이 동시에 높은 누적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 실속 있는 스테디셀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11일 - 17일)

금주 음반 소비자 동향은 대형스타들의 컴백이 뜸해지고 아이돌스타들의 활동이 끝물에 접어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음반 판매량이 약간의 변화를 갖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90년대 가수들의 진입과 기존 음반들의 재도약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 3.2 음원동향 : <총 맞은 것처럼> 전 차트 석권

12월 2주 음원시장은 그야말로 <총 맞은 것처럼>이 대세이다. 음반 시장에서는 5위 안에 들지 못했던 백지영의 7집 앨범 중 타이틀곡 <총 맞은 것처럼>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모두 1위를 석권하였다. 이로서 올 가을 대형스타의 컴백 러시 속에서 실종되었던 발라드의 강세는 <총 맞은 것처럼>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노랫말이 인상적인 이 노래는 백지영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더불어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음반의 발매 없이 디지털 싱글 형태로 나온 곡들의 선전도 눈여겨 볼만 하다. 린의 <매력쟁이>나 케이월의 <러브119>, M to M의 <One Day> 같은 곡들은 네 개의 사이트 모두 중상위 이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인기가수들의 피쳐링으로 화제를 모은 곡들 또한 음원 순위에서 강세를 보였다. MC몽이 참여한 린의 <매력쟁이>나 케이월의 <러브119>는 대부분의 음원사이트에서 10위권에 진입했고 이 외의 나몰라패밀리의 <불잡아도> 역시 선전하고 있다. 이 같은 피쳐링은 2008년에 들어서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이다. 음반 시장보다는 음원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어 당분간 피쳐링 곡의 음원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순위	박스 12/5 ~ 12/11	엠펙 12/8 ~ 12/14	도시락 12/8 ~ 12/14	멜론 12/7 ~ 12/13
1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2	린 / 매력쟁이	빅뱅 / 붉은노을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 노을
3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SS501 / U R Man	빅뱅 / 붉은노을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4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SS501 / U R Man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5	빅뱅 / 붉은 노을	린 / 매력쟁이	린 / 매력쟁이	원더걸스 / Nobody
6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비 / Rainism
7	M to M / One Day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동방신기 / Wrong number	이수영 / 이런 여자
8	럼블피쉬 / 비와 당신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비 / Love Story
9	브라운아이드걸스 / 좋은날	M to M / One Day	윤건 / 가려진 시간 사이로	케이윌 / 러브119
10	카라 / Pretty Girl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비 / Rainism	브라운아이드걸스 / 어쩌다
11	SS501 / U R Man	이수영 / 이런 여자	원더걸스 / Nobody	손담비 / 미쳤어
12	Tei / 기적같은 이야기	비 / Rainism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린 / 매력쟁이
13	이수영 / 이런 여자	Tei / 기적같은 이야기	케이윌 / 러브119	환희 / 내사람
14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동방신기 / 주문	M to M / One Day	휘성 / 별이 지다
15	박지현 외 / Happy Together	케이윌 / 러브119	이수영 / 이런 여자	Tei / 기적같은 이야기
16	마이티마우스 / 패밀리	원더걸스 / Nobody	가비엔제이 / 착한 사랑	SS501 / U R Man
17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백찬 외 / 무슨 사랑이 그래요	빅뱅 / Number1	언터처블 / It's Okay
18	가비엔제이 / 착한 사랑	동방신기 / Wrong number	박지현 외 / Happy Together	은지원 / Dangerous
19	미스에스 / 바람피지마	환희 / 내사람	럼블피쉬 / 비와 당신	태연 / 들리나요
20	김동희 / 사랑해 그래서 미안해	이승철 / 듣고 있나요	원더걸스 / Anybody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출처 : 박스, 엠펙, 도시락, 멜론

음원 사이트 별로 살펴보면 박스뮤직의 경우 빠른 댄스곡보다는 미디엄 템포 곡이나 발라드 위주의 순위 구성이 눈에 띄었고, 멜론의 경우 음반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앨범의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있는 모습을 보였다.

팬으로서의 충성도를 보이는 음반시장과 달리 음원시장의 경우 강화제성 곡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시즌의 음원시장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을 영두에 둔 시즌 송들의 기획이 부진한 모습을 볼 때 불황의 그림자가 음원시장에도 드리워져 있음을 실감한 한 주였다.

## 4. 언론 동향

### 4.1 호조를 보인 2008년 음반시장. 일시적인가?

지난해 말 기준, 10만장 이상 팔린 앨범은 SG워너비, 슈퍼주니어, 에픽하이 뿐이었지만 올해는 동방신기를 비롯해 빅뱅, 서태지, 브라운 아이즈, 비, 김동률 등 6팀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2008년에 계속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2008년은 음원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최초로 음반 판매량이 음원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보도되었으며 동방신기의 4집 앨범 ‘미로틱’은 현재 4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2004년 서태지 7집의 기록인 48만장을 갱 태세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OST, 인디 음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클래식 음반계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판매에 호조를 올렸으며 최근에는 김연아의 위력까지 그 가세하여 열기가 식지 않고 있고, OST 분야에서는 ‘맘마미아’ OST가 10만장 돌파라는 기염을 토했다. 또 인디 영화인 ‘원스’의 OST 역시 꾸준히 판매가 이뤄지면서 6만장을 달성했다.

인디음반 역시 ‘언니네이발관’이 4년만에 복귀하여 발표한 신보 ‘가장 보통의 존재’가 2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저력을 과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사와 다수의 음악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보다 많이 팔린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원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부정적이었는데 건강한 음악 산업을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관련 기사>

- 2008 음반시장, 음반판매 호조 일시적 현상인가 [주간한국 2008-12-16 14:06]
- <2008 음반결산> ‘베바’ 인기타고에 클래식 판매도 순풍 [헤럴드 생생뉴스 2008-12-17 15:01]
- ‘국민요정’ 김연아, 클래식 음반으로 주간판매 1위 [세계일보 2008-12-15 21:56]
- 아이돌-댄스곡, 2008 온라인 음원시장 '장악' [스타뉴스 2008-12-17 11:12]
- <2008 음반결산> ‘베바’ 인기타고에 클래식 판매도 순풍 [헤럴드 생생뉴스 2008-12-17 15:01]
- [2008 연예계 결산]⑤ 서태지와 ‘아이돌’ 불황타파 [세계일보 2008-12-17 20:35]
- ‘희망’을 본 2008 가요계, ‘올스타’와 장기하 그리고 ‘아침이슬’ [OSEN 2008-12-15 09:30]

### 4.2 대형 음악 협회 ‘한국음악콘텐츠 산업협회’ 공식 출범.

소니비엠지뮤직, 엠넷미디어, JYP등 국내 주요 음반사 및 디지털음원 유통사, 제작사 등 총 13개사가 결합한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며 정식 단체로 출범했다. 이들은 2006년, 음악 산업 진흥 및 불법 음원 유통 방지를 위해 결성됐던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를 전신으로 한다.

현재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에 가입되어있는 13개의 메이저 음반사들은 국내 음원 유통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반 산업에서 이 협회의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음악업계의 지적 재산권 및 권익 보호, 음악 콘텐츠의 유통구조의 합리화, 음악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음악 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해당국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기타 본 협회에 필요한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특히 2006년부터 계속해오던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이루어 어려운 음반 시장에서 음반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 <관련 기사>

대형 음반사 주축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공식 출범 [아이뉴스24 2008-12-12 15:24]

대형 음반사 뭉쳤다... 음악콘텐츠산협 출범 [세계일보 2008-12-12 22:07]

대형 음악 협회 '음콘협' 출범...유통구조 합리화 될까 [노컷뉴스 2008-12-13 10:45]

"음악콘텐츠 유료화 시장1조로 키울것"... 방극균 음악콘텐츠 산업협회 회장 [한국경제 2008-12-14 17:50]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출범 [연합뉴스 2008-12-12 10:11]

### 4.3 아이들의 강세 그리고 新·舊 의 조화

2008년은 아이돌그룹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방신기, 빅뱅, 원더걸스, 카라 등 기존의 아이돌그룹들은 물론 새롭게 가세한 2AM, 2PM, 샤이니 까지 음반 판매와 음원 판매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입증했다.

이 아이돌의 돌풍 속에서 동방신기는 9월24일 앨범 '주문-미로틱'이 단일 앨범으로 46만장(소속사 집계기준)이 넘게 팔리는 쾌거를 이룩하며 단연 두르러졌고 라이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빅뱅 역시 올 한해 두 장의 미니앨범과 한 장의 정규앨범으로 약 5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음반 판매뿐만 아니라 음원 판매에서도 아이돌그룹의 강세는 이어졌는데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KTF도시락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음원 판매와 관련, '연간 랭킹 톱 100' 결과에서 원더걸스를 비롯한 아이돌 그룹들은 1위부터 4위를 독식했고 전체 점유율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댄스곡이 강세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올 가요계의 최대의 이슈는 바로 서태지의 귀환이었다. 4년 6개월 만에 복귀한 서태지는 등장 자체만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왔는데 클래식 음악가 톨가 카쉬프와 함께 퓨전 콘서트를 선보이는 등 한발 앞선 '도전'으로 가요계를 이끌었으며 음반 판매도 10만장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더불어서 김동률과 브라운아이즈 역시 1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기록했고 신승훈, 김건모, 엄정화, 쿨 등 1990년대 스타들도 새 음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관련 기사>**

- [2008 연예계 결산]⑤ 서태지와 '아이돌' 불황타파 [세계일보 2008-12-17 20:35]
- <2008 문화> ⑩新·舊 조화이론 가요계(끝) [연합뉴스 2008-12-15 07:34]
- [2008키워드&이슈⑤]2008 가요계, '아이돌'로 통하다 [아시아경제 2008-12-16 10:47]
- [2008 가요계 결산①]'0부터 42만까지'...숫자로 돌아본 가요계 [이데일리 2008-12-16 13:52]
- 아이돌-댄스곡, 2008 온라인 음원시장 '장악' [스타뉴스 2008-12-17 11:12]
- 전문가들이 뽑은 2008 최고의 음반은 원더걸스 '노바디' [일간스포츠 2008-12-17 09:56]

**4.4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 논란**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비의 '레이니즘'의 가사에 선정성을 지적하고 19금 판정을 내린데 이어 동방신기의 '미로틱'에 대해서도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렸다.

비의 '레이니즘'은 '떨리는 네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매직 스틱(Magic Stick)'이라는 가사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상징한다고 판단,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납득할 만한 판정이라는 여론이 있지만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의 경우, 특정 가사가 아닌 전체적인 곡의 맥락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동방신기 '주문-미로틱(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에 대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처분취소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임진모 "음반심의, 사회변화 반영해야" [연합뉴스 2008-12-16 17:44]
- 동방신기 '주문-미로틱' 결국 행정소송으로 [일간스포츠 2008-12-16 17:16]
- 비, 논란이 된 '매직스틱' 포함된 원곡 들고 아시아 9개국 나서기로 [스포츠칸 2008-12-16 19:31]
- '유해매체' 판정 동방신기, 집행정지-고시처분취소 소송 접수 [마이데일리 2008-12-16 15:48]

**5. 세미나 및 학회 소식 등**

**5.1 저작권 위원회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관련 사업 보고 -**

기술 강국의 장점을 바탕으로 문화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 66조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문화계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사업의 정책을 검증하는 등 저작물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기술위원회에선 향후 음악, 어문, 영상, 방송 등 다채로운 영역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사업 경과가 보고되었고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사업의 세부 내용을 기초로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이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기술위원회 활동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 5.2 지역음악협회, 선거 앞두고 시끌벅적

차기 대전음악협회 선거가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출마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출마가 확실한 후보는 장동욱 목원대 교수이며,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내비치는 다른 후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전음악 협회는 지역 음대 교수와 중·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번갈아 협회장을 맡아오는 관례에 따라 차기 회장은 음대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관례적 양자 구도가 지속될지 장동욱 목원대 교수의 단독 출마로 성사될지는 29일 오후 7시 대전 문화 예술의 전당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내년 1월에 차기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광주음악협회에서도 선거 절차에 대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음악협회 일부 회원들은 16일 가칭 '바른 선거 실천연대'를 결성하여 광주음악협회가 간선제에 의한 선거를 추진함으로써 협회 회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한 협회 회원은 광주의 음악 발전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몇몇 소수 특정 임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회원들의 최소 권리행사인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 광주음악협회 지회장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관을 토대로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년 1월 14일에 행해지는 지회장 선거와 1월 20일 정기총회를 통해 구성되는 차기 집행부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 III. 해외 동향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1 뉴욕정부 다운로드 세금부과 법안 "iPOD Tax" 부과 추진.

뉴욕주가 월스트리트 붕괴에 따른 약 154억달러의 적자 재정을 메우고 내년도 예산 집행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 항목 88개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과세안에는 이른바 '아이팟 세금(iPod tax)'라 불리는 디지털 다운로드 파일 및 온라인 쇼핑몰 거래 세금까지 준비되어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디지털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관한 세금이다. 뉴욕주는 그동안 세금 면제 품목이었던 디지털 음악 파일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약 4%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 디지털오디오, 텍스트 파일, 디지털 사진, 게임, 전자엔터테인먼트 품목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는 "이번 세금안이 통과되면, 음반, 앨범, 영화 등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아마존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뉴욕주에 법인이 없으면 뉴욕주민 이곳 쇼핑몰을 사용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향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수단(nexus)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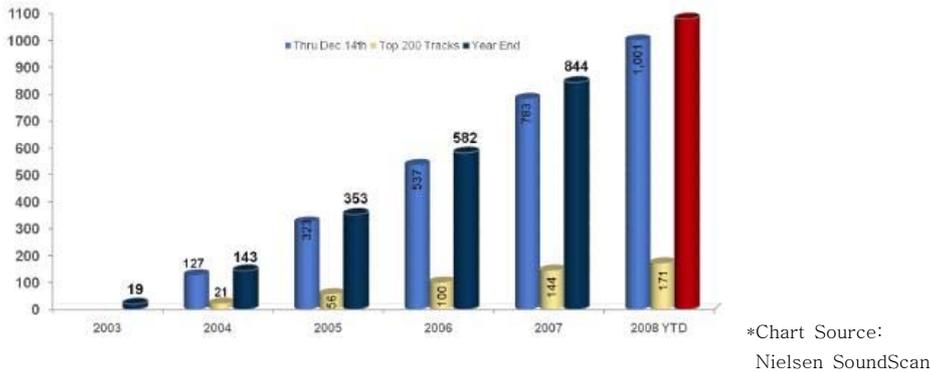
뉴욕주는 이외에도 케이블 TV 및 위성 TV, 택시, 와인, 담배, 마사지 등도 과세 대상 혹은 증세될 예정이다.

-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안건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보조수단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세금이 추진된다는 점이며, 이는 저작권 및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에 많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이전 세계 각 국가 정부들이 'iPOD' 법안 추진을 검토하다가 철회한 사안이 있었던 만큼 다시 논란의 불씨를 금융위기라는 타이틀로 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 Plan would tax music downloads, ballgames, cable TV 19 Dec 2008 ... Newsday.com 외

### 1.2 디지털음악 매출이 10억 달러 예측 그러나 '블루크리스마스'시즌이 오고 있다.

어려운 음악산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디지털음악 매출이 최초로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어 지고 있다. 개별적 음원 다운로드는 보면 상위 200곡이 전체에서 17%를 차지하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팔린 음원은 Leona Lewis의 "Bleeding Love"이며 약 3,300,000개의 다운로드가 이루어 졌다. 또한 올해 앨범판매량은 2000년 판매량의 45%가 줄었으며, 향후 오년간 매년 8%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산업계에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은 '블루크리스마스'로 예측했으며,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대비 21.7% 하락할 것으로 Nielsen SoundScan이 전망했다.

- 국내의 경우 음반 판매량이 음원 판매량 못지않은 모습을 보이며 한국음반업계에 희소식을 전해준 해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상당부분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Music retailers singing the blues as sales decline 17 Dec 2008 ... NEW YORK (Billboard) 외

### 1.3 GoTV 네트워크의 True Country가 모바일 컨츄리음악 채널을 런칭했다.

True Country는 휴대폰을 통하여 컨츄리 음악 및 다양한 음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GoTV는 이러한 모바일 관련 방송 및 콘텐츠 확장을 통하여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에 강한 면모를 구축하고 있다.

\*GoTV네트워크는 미국 내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모바일 방송기업이다.

- 현재 한국역시 휴대폰 전용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익모델 구축의 어려움으로 관련 방송기업 및 업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GoTV의 콘텐츠 구축내용은 검토해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 **관련기사** : True Country Goes Mobile as GoTV Networks Launches New Music Channel. .. Dec. 17, 2008. LOS ANGELES 외

### 1.4 유럽 음악 저작권 기간 70년으로 연장 추진.

음악 저작권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럽 정부에서 고심 중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영국 문화부 장관은 녹음물의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

다. 앤디 버넘 장관은 영국 음악 창작인 회의(UK Music Creators' Conference)에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텔레그래프지는 이를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음악 저작권을 50년에서 95년으로 연장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내놨다.

텔레그래프지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이 변화를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기도 한 가수 클리프 리처드(Harry Rodger Webb)의 승리로 보고 있다. 그는 로저 달트리와 함께 저작권의 연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는 1959년 데뷔했으며, 현 영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그의 히트곡들의 저작권은 끝이 난다

\*관련기사 : 英 정부, 음악 저작권 기간 70년으로 연장 추진 2008-12-13 마이데일리 외.

### 1.5 베스트바이-월마트 록음반 독점판매 `희비 교차`

유통채널간의 음반 유통 맞대결에서 월마트가 독점 판매한 록 음반 AC/DC의 앨범이 베스트바이가 독점하는 건스앤로지스의 신보를 이겼다.

닐슨사운드스캔에 따르면 건스앤로지스의 신보는 발매 첫 주 빌보드 앨범차트 3위를 보였지만, 2주차 판매는 78% 급감했다. 신보 판매 저조는 베스트바이의 실적에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베스트바이의 올 매출액은 전년대비 5~1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월마트가 독점 판매하는 AC/DC의 신보 `블랙 아이스`는 꾸준한 판매를 보이며, 10월 발매 첫 주 빌보드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금까지 160만장이 팔렸다.

이 같은 차이는 마케팅적으로 베스트바이가 건스앤로지스의 앨범 자체만의 단일 품종 전시였다면, 월마트는 AC/DC의 음반과 더불어 관련 티셔츠, 비디오게임 등을 함께 배치하여 소비자 구매욕구의 다양성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음반매장 보다는 생활용품의 대형매장 중심의 앨범판매가 대세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음반 유통의 중추를 이마트 혹은 홈플러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입장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이다.

\* 관련기사 : 베스트바이-월마트 록음반 독점판매 `희비 교차` 2008-12-16 이데일리 외.

### 1.6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전략적 변화 프로그램 착수

12월 12일 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은 엄격한 재무 규율을 유지하고 중복된 예산 제거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변화 프로그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Gurry 사무총장은 “새 전략구조는 21세기속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긴박한 과제들에 응답하는

조직의 업무에 초점을 다시 맞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이번 발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그램의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조직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지적재산권의 현실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데에 대응하는 WIPO의 이번 조직개혁 프로그램은 한국의 여러 저작권단체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 **관련기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ww.wipo.int](http://www.wipo.int)) 공식 브리핑 2008-12-15

##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 2.1 애니메이션 겨울연가 한류 붐 계속 이어가나

지난 12월 14일 오후 1시,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 센터니아홀에서 애니메이션 '겨울연가'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고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보도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사 측은 "2009년 7월, 한국의 K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송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현재 애니메이션 겨울연가는 전체적인 골격은 완성된 상태이고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메이션 '겨울연가'는 배용준을 한류스타로 만든 동명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제작비 10억 엔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배용준은 이날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홀을 가득 채운 1만여명의 팬들과 일본 각지의 영화관에 모인 팬들과 위성생중계 팬미팅을 가져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애니메이션 '겨울연가', 12시 베일 벗어...배용준 최지우 이별 이후 마이데일리 - 2008-12-14 외

### 2.2 한국가수 오리콘 위클리 차트 석권

음반분야의 경우에는 일본과 대만, 홍콩에서 <동방신기>, <비> 등 한국 가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동방신기), 2위(이병헌), 4위(류시원)를 모두 한국 가수가 차지했으며, <동방신기>는 2008년에 4차례나 1위에 등극하는 등 한국 가수에 대한 호응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를 기록한 다음주에 50위권으로 떨어짐으로서 마케팅에 힘입은 반짝 인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아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 시장에 데뷔했으며, 음원 다운로드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등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2.3 한국가수 일본 진출 붐

가수 알렉스가 한국요리 프로그램 MC로 일본에 진출한다.

알렉스는 내년 2월부터 일본 TV TOKYO 방송을 시작으로 8개 방송국에서 순차적으로 방영되는 '맛있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되면서 한국의 맛을 일본 전역에 전파시키며 본격적인 한류 열풍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SG워너비·안재욱 팬클럽 관리 기획사에게 초대받아 그룹 오션 출신 가수 이현이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현의 한국측 소속사 관계자는 일본의 기획사가 이현의 일본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팬미팅, 미니콘서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2.4 말레이시아, 카세트와 CD 판매 감소

말레이시아 음악 업계는 지난 3년 동안 CD와 카세트 판매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이 부문의 총판매는 20% 가량 감소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2005년에는 8800만 링깃에서 2008년에는 6000만 링깃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은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음반 산업 Sandy Monteiro 부사장은 1997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악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정부가 불법 광학 매체 해적판 근절 활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벌인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상황에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고 했다.

\* **관련기사** : Berita Harian 2008-12-12